

**무궁화위성 8월3일
발사**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 1호가 한국시각으로 오는 8월 3일 오후 8시15분과 10시14분 사이에 발사된다.

한국통신은 12일 위성체 인도회사인 록히드 마틴사가 7월 18일을 인도일로 제시하고 위성체와 발사체의 결합 및 시험에 11일이 소요된다는 발사체제작회사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의견을 종합해 3시간에 발사일정을 이같이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황보한 위성사업본부장은 "현재 위성체 인도일정상 4일간의 여유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시험 결과로 볼 때 남아있는 위성시스템의 지상시험을 무난히 통과해 8월 3일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궁화위성은 현재 12차 성능시험을 성공리에 끝마친 상태이며 발사체는 3단 로켓과 9개의 보조로켓중 1,2단 로켓과 보조로켓이 발사대에 세워져 조립된 상태로 위성체가 인도되면 3단 로켓과 결합된뒤 최종시험을 거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정보통신전시회 개최

오는 8월로 예정된 무궁화위성 발사와 광복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정보통신전시회"가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열렸다.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통신,데이콤등 등 9개 정보통신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참여업체들이 독립된 전시관을 설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소개했다.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의 실물 크기 위성체와 10분의 1크기의 발사체 모형을 전시, 소개하며 전화선을 이용한 주문형비디오(VOD), 탁상형 영상회의시스템,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상현실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우리별 3호, 4호 개발
예정**

소형과학실험위성 우리별1,2호에 이어 오는 97년 우리별 3호, 99년 우리별 4호가 발사된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

센터(소장 최순달)는 "우리별 1,2호의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별 1호(48.6kg)와 2호(47.5kg)에 비해 2배 이상의 규모인 3호(1백kg)를 개발중이며 4호는 3백kg급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월 13일 밝혔다.

우리별 3호는 프랑스의 아리안로켓을 이용해 지구궤도로 쏘아올린 우리별 1,2호와 달리 오는 97년 5월 중국의 장정-4호 로켓을 이용해 고도 8백70km의 태양동기 궤도에 발사될 예정이다.

또 위성에 탑재되는 카메라의 해상도는 우리별 1호가 4백m, 2호가 2백m인데 비해 3호는 15m로 크게 향상되고 99년 하반기 발사예정인 4호는 5m로 추진된다.

우리별 3호는 과거처, 정보통신부, 한국과학재단의 예산(80억원) 지원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남아공화국의 스텔렌보쉬대와 공동개발하는 15m 해상도의 카메라를 위한 광학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전부분이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 시험된다.

우주소년단, 로켓발사 대회 개최

오는 8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호 발사를 기념하기 위한 '모형 무궁화위성 제작발사대회'가 6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한국우주소년단(총재 이상희) 주최로 열렸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통신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김노철 한국통신 부사장, 이상희 우주소년단 총재등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주소년단 1,400여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모형인공위성제작대회는 참가학생들이 2인1조로 폐품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통신위성, 지구관측위성, 기상위성, 과학위성과 같은 기존 인공위성은 물론 독창적인 위성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서울 신성국민학교 채홍석,정재순팀(도교사 박정령)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모형로켓발사대회는 참가자들이 모형로켓용 엔진을 제외한 다른 동체의 모든 부분을 미리 직접 설계, 제작한 로켓을 발사하는 대회로 서울 세화고등학교 임상태,송겨진팀(지도교사 정진호)이 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고

미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무궁화위성 발사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영예를 안았다.

러시아 중 공동우주개발 계약예정

러시아와 중국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공동 우주개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렉산드르 메드베드치코프 러시아 우주국(RSA) 부국장이 5월 18일밝혔다.

메드베드치코프 부국장은 중국으로부터 우주개발과 관련, 당장 실현될 수 있는내용은 아니지만 수백건의 협력안을 제시 받았다고 밝히고 러시아는 유인과 무인 우주비행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우주협력력을 위한 기업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RSA와중국 국가항천국은 비정부급 협정을 체결해 놓고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통신 및 탐사위성 분야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전망이 밝으나 유인 우주비행 부문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태 위성통신협의회 현판식 개최

지난해 10월에 결성된 아태 위성통신협의회(APSCC)가 5월 15일 오전 서울 역삼동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업무 시작했다. (전화 563-4943)

이 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위성방송서비스와 위성의 궤도 주파수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32개국과 14개 위성통신서비스 회사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협의회 초대 의장을 맡은 정선종 전자통신연구소 위성통신연구단장을 비롯, 박영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 이정욱 한국통신 기획조정실장 정경진 협회사무총장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 협의회 상임이사들인 오타키 일본우주통신 부사장 트루가니발루 피지통신 정책국장 버틀러 전국대전기통신연맹 사무총장 유영후엔 싱가포르ST통신 매니저도 같이 참석했다.